

광양만권 외국기업 많지만 정부 투자 저조

감사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

361곳 중 50곳 입주해 13.34%...전국 8곳 평균의 4배 사업비 대비 집행 30%...투자 제때 안돼 활성화 부진

광양만권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361곳 가운데 50곳이 외국인 입주기업으로, 그 비율이 13.85%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중인 경제자유구역 8곳 평균 3.34%보다 크게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총사업비 대비 집행비가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

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 부산전해, 광양만권, 새만금,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8개의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631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입주기업은 3.3%인 211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기업은 6100개(96.7%)에 달했다.

또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미개발률이 43.1%에 달했고, 미개발 지역 가운데 43.1%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공사도 착수하

지 않고 있었다. 광양만권의 경우 개발률이 59.8%로, 8개 평균 개발률(56.9%)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운영되는 광양만권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투자가 극히 저조했다.

광양만권은 당초 2020년까지 국비 2조 1889억원, 지방비 2조6631억원, 민간자본 8조4045억원 등 13조2565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2014년 말까지 고작 4조839억만이 집행됐다. 집행금액 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조43억원으로 애초 사업비의 절반 수준, 지방비는 890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며, 민자는 2조1888억원으로 4분의 1 수준이었다. 광양만권의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은 30.80%로, 8개 경제자유구역

평균 집행률 33.24%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광양만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산업부가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활용률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가 1.36㎢인데 수요가 1.29㎢ 만큼 과다하게 산정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지난 2013년 6월 한 사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48.24 (-0.80)

금리 (국고채 3년) 1.77% (0.00)

↓ 코스닥 664.08 (-4.34)

↑ 환율 (USD) 1179.30원 (+0.70)

광주·전남 38개社 '수출탑' 수상

26명에 유공 포상...광주시, 3개 부문 16개 시도 1위

광주·전남 수출기업 중 올해 높은 실적을 쌓은 공로로 38개 수출기업이 수출탑을 수상한다.

또 무역진흥 유공자, 지역 자치단체,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이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 26명에 대해서도 훈포장이 수여된다.

광주에서는 ㈜대우에이텍이 2억달러 수출탑을, 대영전자㈜와 한국차량공업(주)이 각각 3000만달러 수출탑을 받는 등 모두 24개 수출기업이 수출탑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유공포상에서는 유한회사 케이테크 코리아 이흥주 대표가 산업포장을 받으며, ㈜나전·㈜유로텍솔루션 임직원 등 총 19명이 유공 포상을 받는다.

광주시는 올해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인정받아 제52회 무역의 날

최우수 수출지원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다.

전남은 재원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7명이 유공 포상을 받는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도와 공동으로 10일과 15일

광주와 영암에서 각각 제52회 무역의 날을 기념한 광주·전남 수출탑 전수식을 열고 지역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탑

시상과 무역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9일 오세철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이 '2015년 광주상의 신규 회원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의 신규회원 CEO 간담회

광주상공회의소가 9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중소연회장에서 '2015년 광주상의 신규 회원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광은비즈니스㈜ 김영준 대표이사, ㈜토담건설 정덕관 대표이사 등 40여 명의 신규 CEO들이 참석했다.

오세철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국내 경기가 미국 경기 회복, 유가 하락 등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 가계부채 등이 불안요소로 작용해 3% 안팎의 저성장이 전망된다"며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심기일전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규 회원 CEO 간담회는 매년 12월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현대기아차, 러시아서 쾌속

11월 점유율 22%...월 판매 기록 역대 최고

현대기아차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휩쓸고 있다.

9일 유럽기업연합회(AEB)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지난 11월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22.2%였다. 이는 기존 월간 역대 최대치인 지난 9월 22.1%를 넘어선 수치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11월까지 누적 점유율은 20.4%로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역대 처음으로 러시아 시장 연간 점유율 20% 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에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7% 감소한 1만5101대, 기아차는 32% 줄어든

1만4125대였다. 그러나 러시아 시장 전체는 42.7% 감소한 13만1572대를 기록함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시장 지위는 더욱 높아졌다.

현대차의 러시아 시장 선전은 현지 전략 모델인 쉐라리스가 이끌었다.

쉐라리스는 지난 11월 1만1462대 판매되며 러시아 현지 업체인 라다의 그란타(9000대)를 제치고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쉐라리스는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러시아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10월보다 3조원 줄어...“집값 하락하나” 관심

지난 11월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넘게 늘었지만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3조3295억원으로 전월(339조2908억원)보다 4조386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월간 증가폭은 9월(3조9043억원)보다는 크지만 10월(7조497억원)에 비해서는 3조원가량 급감한 수치다.

특히 10월과 11월 증가분이 3조8천억 원대로 비슷했던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올

해는 10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는 주택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들어 상황에서 집값 하락을 예고하는 징후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노원구, 관악구, 강동구를 비롯한 서울지역과 경기 구리, 안산 등 수도권 매매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분양권 시장에서도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中企 멘토 '광주창조경제서포터즈'

기획·마케팅 전문가 매주 릴레이 현장멘토링 진행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벤처창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광주창조경제서포터즈가 매주 지역 벤처중소기업을 방문, 현장 멘토링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창조경제 해법을 찾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창조경제서포터즈는 지난 7일 광주 북구 오룡동 과학기술원 창업보육생산동에 있는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ICT전문기업인 (주)해건에서 릴레이 현장멘토링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멘토링에는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기획·마케팅 분야는 물론 금융과 회계 등에 대한 노하우와 경영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광주창조경제서포터즈는 오는 15일 첨단지구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에서 현장멘토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신찬호 전자부품연구원 광주 지역본부장과 조승경 국립광주과학관

본부장의 특강도 마련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연탄나누기와 불우이웃 돕기 등 나눔실천에도 나선다.

이처럼 현장멘토링은 광주창조경제서포터즈 전문멘토들이 CEO와 대화를

통해 기술동향과 창업과정의 어려움, 지원방향을 논의해 격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벤처창업분야의 멘토그룹과 멘티를 연계해 경영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 공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멘토그룹으로는 박철희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과 서용득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 호남대 이양원 교수, 이정기 전자부품연구원 스마트가전 혁신지원센터장, 이현미 남부대교수, 김종민 해건대표, 박종기 제이디텍 대표, 김현주 광주전남과학기술인총연합회 사무국장, 강운구 한국스마트광용복합

협동조합 단장, 윤수미 불럭버스 원장, 박재철 한국에너지공단 차장, 이기현 KR유통 대표, 조용환 광주전남축구협회 경기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명이 활동중이다.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대화가 중요한 만큼 간담회와 워크숍,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올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쪄갠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쪄갠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